

# 2008년 본 협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최규철 사무총장

- 본 협 정기총회 2009년 1월 7일 개최(대전 아드리아호텔)
- 향후 비전과 풍부한 경륜과 경험, 업무수행능력, 강한 리더십 등을 두루 갖춘 자를 임원/지회장으로 선출 합시다.
- 금번 임원/지회장 선거는 화합으로



11월18일부터 서울지회를 시작으로 정기총회가 개최되고 2009년도 1월 7일은 본회 정기총회와 임원을 개선하는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금번 임원선거는 회장1, 부회장2명, 이사5명, 감사2명을 선출하고, 각 시·도지회는 지회장과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간 협회와 양봉업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현

임원/지회장에게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협회의 임원선출은 양봉산업의 발전에 백년대계의 앞을 내다보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협회 및 지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이 선정하는 작업이 분주하다.

현재 많은 인원들이 업계를 위해 임원에 출마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

는 분위기이다.

매년 지회장,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전에서는 지지후보자에 따라 회원 간 양분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선거이후에는 서로 다른 후보자를 지지했더라도 우리 양봉인들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우리 양봉인들 스스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지하는 후보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헐뜯거나 비방하기 보다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회의 선거전은 어느 단체보다 그 열기가 뜨겁다. 열기가 뜨거운 것은 업계와 양봉농가를 위한 관심도 높다고 판단되나 너무 과열된 선거전과 상대비방은 회원 간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서로의 길을 걷는 일이 발생하므로 서로가 자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들어내는 감정싸움보다 회원 및 대의원들에게 향후 양봉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여야 하며, 터무니없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임원선출은 전국 4만 양봉인들의 얼굴이다. 풍부한 경륜과 경험, 그리고 품행, 업무수행능력 등을 두루 갖춘 자를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지금의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은 양봉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잘하는 농가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과 농업인 등록제 등을 시행하여 경쟁력이 있는 전업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농업 정책을 펴나가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타 농업에서는 풍작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울상이며, 특히 채소(무우, 배추)농가들은 생산비 원가도 나오지 않아 농사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금년 쌀농사 풍년으로 예년에 비해 20만톤이 증가되어 수매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리도 하루빨리 국제 시대흐름에 맞추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향후 각종 정책과 비전을 정부에게 제시하고 몸소 실천하여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양봉산업을 육성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선거로 인하여 업계가 분열되는 선거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가 자제하는 모습과 화합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업계를 위해 일하겠다고 출마의사를 표명한 후보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금번선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기원한다.